

광주 내년 예산 3조2446억... 전남 '국비 9조 시대' 개막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AI 영재고 설립 등 주요 현안 '속도' 전남,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연구비 확보

국회가 21일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광주시 예산으로 3조2446억원이 반영됐다고 21일 밝혔다.

민선 8기 광주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 지능(AI)과 미래차 분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되면서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AI분야에서 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374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국회에서 53억9000만원이 추가 확보되면서 AI중심 생태계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됐던 GIST(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 31억8000만원이 국회에서 어렵게 확보되면

서 AI 핵심 인재 양성이 보다 탄탄해질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 사업비도 국회에서 15억원이 반영되면서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미래시장 선점에 나설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래차 분야 예산 확보에도 성과를 이뤘다. 지난 7월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선정된 광주시는 미래차 연구개발(R&D)과 테스트베드 구축과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 예산 11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국회에서 추가로 국비 19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영산강 Y프로젝트 엔지니어링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 사업(5억원)도 최종 확정됐다. 이밖에 도심을 가로지르는 광주선(광주송정역-광주역) 복선·지하화 사전타당성

영역비 20억원이 최종 국회에서 반영됐다. 최근 착공식을 가진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축비와 토지보상비 42억7000만원이 추가로 국회에서 확보됐다.

다만, 광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가 기관 조직규모 증가에 따른 인력 및 운영비 검토가 지연되면서 아쉽게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엔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다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가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9조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국비 9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정부의 재정 정책 긴축 운영 방침으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컸던 상황에서 이를 감안하면 국비 9조원 확보 성과가 의미 받아들여지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 '2024년 정부 예산'에서 전남권권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9조원 이상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 9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손감으로 전환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재정 긴축 분위기에 사상 최초로 9조원의 국비를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을 굳건히 다졌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도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국비는 8조 6000억원 규모였다. 특히 핵심 현안에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3억3000만원)이 확보됐다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또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진단 및 성과평가, 추가지정 필요성 연구비'도 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고, 여수 국동항 건설 설계비(10억원)도 처음 확보했다.

지역 숙원사업들도 새롭게 반영돼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권 소금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3억)이 이뤄지게 됐고 여수석유화학산업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사업(25억), 세종산단 2단계 간선도로(9억), 흑산도 봉안당 신축 사업(13억 6500만원)도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의 긴축정책 기조에도 전략적 대응과 국회 및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656조6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은 약 4조2000억원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손감으로 전환했다. 전년(638조7000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열린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안구백 전략공천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로당 찾은 이재명 "주5일 점심 제공" 간담회서 총선 공약 발표... 다음달 3일 대통령 신년 인사회 참석키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경로당을 찾아 '주 5일 점심 제공'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을 10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먹거리를 책임지는 노인 맞춤형 공약으로 본격적인 노년층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한 경로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최소한 주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한국이)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스러운 통계도 실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며 "대한민국 국력과 경제 수준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부족하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결국 국가 의지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로당 급식 지원을 시도 단위로 보면 제일 많은 곳이 충북이고 제일 지원 안 하는 곳이 대구인데 이것이 함의가 좀 있다"며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방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최저선 없이 누군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만 선택해서 골라서 지원하는 복지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국

민들 삶에 대한 기본적 수준을 정해두고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소위 말하는 기본사회를 미래 비전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경로당 점심 배상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려고 한다"며 "노인복지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서 전국 모든 경로당에 주5일 점심 배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내달 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내년 1월 3일 청와대 영빈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신년회가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혔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초 열린 신년 인사회에는 불참했다. /연합뉴스

총선 브리핑

노회용 "동남 메가타운 조성해 광주 중심으로"

노회용 전 광주 동구정장은 21일 내년 총선 광주 동남을 출마를 선언하고 "광주전을 중심으로 '동남 메가타운'을 조성해 동남을 지역을 광주의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 전 정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구 발전을 위한 희망, 빛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청년을 위한 희망,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한 희망의 길로 나서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전 정장은 "지난 10여년간 총장로 등 상권 활성화 위한 도시 재정 사업 재정은 1100억원이 넘지만 현재 총장로 상가 공실률은 30%가 넘고 도심 쇠퇴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동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부터 남구 양림동을 하나로 연결하는 메가타운 전략으로 동-남구가 분리돼 있는

광주전을 경제·문화 연결 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전 주변을 특성 보존 지역, 재개발 지역, 자율경신 지역, 종합정비 지역 등으로 나눠 3개 권역·7개 특화지구로 개발하면 제2의 서울정계천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한 문화관광도시 광주와 동-남구의 상권을 활성화시켜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노 전 정장은 "윤석열 정권 1년 6개월 만에 경제성장률은 1%대로 최악이고 물가와 금리, 가계부채 폭등으로 국민은 빚잔치로 몰리고 있다"며 "미래를 위해 황재세,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출연 요율 현실화 등으로 '빛 사회'가 아닌 '빛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m

유근기 "민주당과 정권 재창출에 모든 노력"

유근기 전 곡성군수가 21일 오전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총선에서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군수는 "검찰공화국, 민생, 안전, 안보 그리고 국격마저 무너져 나라꼴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시기, 국민의 엄중한 사명을 받들어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겠다"며 "민주당과 더 변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의원, 재선 곡성군수 등을 지낸 유

전 군수는 산업도시 위주의 광양에 주거·쇼핑·문화·관광·여가·체육활동 등 도시복합기능 환경을 갖춰 행복하고 살기 좋게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곡성과 구례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지역이 소멸위기에 빠졌거나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적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m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